



“우리도 열세 살이에요!” 9월 30일, 조계사 학생회의 13세 법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1994년 현대불교와 함께 태어나 ‘참 불자’로 성장해가고 있는 이들처럼, 현대불교도 더 큰 도약과 성장을 통해 ‘참 인본’으로 다가갈 것을 독자 여러분들께 약속한다.

## 불교계 ‘인재불사’ 팔 걷어야

###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없다’는 말이 불교의 고질적인 탄식이 된지 오래다. 일선 어린이집에선 ‘불자 보육교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 하고, 불교 NGO나 단체들도 실무자를 채용하는데 애를 먹는다. 불사를 영·중·고등으로 번역하거나 통역 일을 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반면, 대학을 졸업한 불자 학생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며 아우성이다. 취업 준비생 전 모(31, 경기도 여주시)씨는 현재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에 종교를 속이고 원서를 넣어 둔 상태. “개신교 기업에 채용된다면 응하겠나”는 질문에 “나이가 많아 취업이 시급하므로 입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씨의 ‘신심(信心)’이 약하기 때문일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활동한 이 모씨는 졸업 후 불교계의 한 단체에서 일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해당 단체에서 “1년 이내에는 채용 계획이 사실상 없다”는 답변을 듣고 중국 유학을 선택했다. 단체 뿐 아니라 불교계 내에서 가장 인력 수요가 활발한 조계종 총무원 역시 정지 공채 대신 필

요에 따라 부정기적인 채용을 하고 있다. 인재양성 시스템 부재의 폐해는 문화에 숨겨져도 심각하게 드러난다. 3년 전 불교오페라 ‘아미타불’ 공연을 준비하던 주최 측은 불자 성악가를 구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종교를 가진 음악인들을 섭외해야만 했다. 당시 공연에 참여했던 성악가 박성규씨는 “개신교에서는 대학 때부터 장래가 촉망되는 음악인을 발굴해 장학금을 지급하며 관리하고, 졸업 후에는 교단이나 교회의 지휘자로 육성한다”고 말한다.

대불련 한승희 지도간사는 “매년 대불련 50여 개 지부에서 100~200여 명의 불자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을 교계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대불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과 이력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불교계 인력 채용 시 활용한다면 인력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취업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대불련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웃 종교의 경우는 어떨까? 개신교의 경우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장학제도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통합 교육기관뿐 아니라 대안

학교와 무료교육시설도 수백여 곳에 달한다. 일례로 개신교 인재양성 기관인 △학교는 2020년까지 △한국사회 각 분야를 이끌 어갈 인력 10만명 양성 △국내외 1000개의 학습공동체 설립 △개신교 인재 키움 교사 1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재양성의 요람이라 할 대학은 이미 ‘개신교 천하’다. 국내 4년제 사립대·대학원 대학 195곳 중 70여 곳이, 사립전문대 139곳 중 20여 곳이 개신교 재단이 설립한 곳이다. (2006년말 대학 정관 기준) 전국신학대학협의회에는 40여 곳이 소속돼 있다. 이렇게 배출된 인력은 교회나 개신교 단체, 개신교인이 운영하는 기업 등에 취직하게 된다.

물론 개신교식의 무조건적인 인력양성만이 해답은 아니다. 한 개신교 목사는 “개신교의 인력양성 시스템은 매우 뛰어나지만 한국 개신교 전체를 위해서라기보다 개별 교회나 교단을 위한 인력으로 키워준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며 “교회·교단의 틀을 넘어 개신교 전체를 위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첫 손에 꼽히는 것은 바로 ‘인력 풀(Pool)’이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불자 정보를 한데 모으고,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신하 불교인재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가칭 불교인재뱅크’가 그 예다. 2003년부터 여성불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하고 있는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인력 풀 형성과 활용의 모범 사례를 보여준다. 한 주영 사무국장은 “적년으로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해 불자를 발굴하고, 이들을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리더십 강좌의 강사로 채용하거나 불교 언론 등에 필진으로 추천하고 있다”며 “스스로 ‘불자’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불교계로서도 훌륭한 인력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인력 양성에 있어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흐름이 있다. 사회의 주요 인력으로 성장하는 오늘날 20~30대의 성향이다. 김웅철 교수(중앙승가대)는 “중앙집권적인 교육과 훈육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방식”이라며 “개인의 성향과 해체주의적 흐름에 발맞춰 인터넷을 통한 연대, 종교색을 배제한 순수한 지원, 종교성을 강요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접근 등 새로운 방식의 인재양성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창간 13주년 특집 48면 발행		지면안내
<b>A면</b>	<b>사람이 희망이다</b>	<b>특집 대선, 선택이 미래다</b>
1	희망을 심는 단체 3選	특별기고 '불교와 정치'
2	현장에서 듣는 인재양성 이야기	대선후보들이 말하는 불교
3	장학금으로 보는 인재양성 현황	미리보는 대불교계 공약
4	창간 13주년 축하 메시지	<b>B면</b>
5	특집 신계사 불사 회향	<b>특집 해외로</b>
6	해운대에서 뜨는 4대 도량	필리핀 경주불국사 포교원 봉사현장 1,2
7	선지식 / 성원 스님	특집 프랑크푸르트 도사법랍회 현장 3
8		특집 문운정의 실크로드 기행 10,11
9		특집 내 아이 불자만들기 12,13

## “미얀마 사태 평화적 해결을”

### WFB세계본부 결의문 채택

세계불교도우의회(WFB)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군사정권의 승려 탄압 만행을 규탄하고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WFB세계본부는 10월 9일 WFB한국본부(회장 최정·진각종 통리위원장) 주최로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에서 평화와 비폭력의 불교정신으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WFB세계본부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미얀마 군사정부는 소중한 불교재산 약탈과 많은 사람들을 투옥하고 폭력으로 인해 사상자를 냈다”며 “우리 전세계 불교도들은 미얀마에서 발생한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와 폭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래불교와 불교도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진각종 교육원장 경정 정사의 ‘미래사회를 위한 불교의 담론’, WFB세계본부 집행위원 요시 하루토마츠 스님의 ‘평화에 대한 불교적 정신자원의 재고찰’, WFB세계본부 오게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장 해정 정사의 ‘현대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할과 성과’에 대한 주제발표가 열렸다.

진각종 창종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호주, 태국, 일본,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등 10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고품질 정수 발효식물 100% 천연

- ◆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 ◆ 산사 참용 조청 1.2Kg - 현 시세
- ◆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

주문서 054-373-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52-056781(영광주·현충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업업무 : 인사 · 형사 ·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화 1) 031)387-5400 | 팩스 031)387-5409  
 휴대폰 1) 010-7504-4521 (간영희 변호사)  
 017-535-0688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식 변호사)

경기도 안성시 동안구 권동 1597 (한양빌딩 20층)(한동역 도보 5분)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The Joye Order of Korean Buddhism Hanmaum Seon Center

원장 대행  
 주지 혜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전화: 사무처 031)470-3100  
 팩스: 031)470-3116  
 홈페이지: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곡 4구 산 5-2  
TEL: 043-877-5000 FAX: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064-727-3100 FAX: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051-403-7077 FAX: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062-373-8801 FAX: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053-767-3100 FAX: 053)765-1600
- 영남지방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055-345-9900 FAX: 055)346-2179
- 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055-744-1321 FAX: 055)746-7825
- 공주지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041-852-9100 FAX: 041)852-9105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 043-259-5599 FAX: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033-651-3003 FAX: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055-643-0643 FAX: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061-284-1771 FAX: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054)555-8871 FAX: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1-718)460-2019 / FAX: (1-718)939-3974  
● Washington D.C.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1-703)560-5166 / FAX: (1-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1-323)766-1316 / FAX: (1-323)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1-847)674-0811 / FAX: (1-847)674-0811
- CANADA (캐나다 지원)  
● Toronto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1-416)750-7943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54-11)4921-9286 / FAX: (54-11)4921-9286  
● Tucumán (투쿠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49-2131)969551 / FAX: (49-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66-2)391-0091
- BRASIL (브라질)  
● Sao Paulo (상파울로 지원)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01127-000-Brasili  
TEL: (55-11) 3337-5291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